

# “통합문화이용권, 생활필수품 구매 금지된다”

### 6세 이상 저소득층 문화체험 기회 제공...1인당 年8만원 지원

### 취지 벗어난 생활잡화 구매 빈번...“투명 운영 유도 계기 되길”

저소득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이용한 생활필수품 구매가 차단되고,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허용품목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문화이용권의 부적절한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편의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행·체육활동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연간 8만원이 지원되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지정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문화 체험이라는 본래의 사업목적 벗어나 사용이 금지된 생활 잡화 등 생활필수품 구매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신규 문화·여행·체육 활동 체험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허용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가맹점이 비허용품을 판매하는 등 관리가 허술한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가맹점 운영상황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자들이 가맹점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탈퇴 등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 복지시설의 단체구매를 위해 필요한 서류목록을 명확히 하고 표준양식을 마련·제공하도록 하며, 영수증 등 보관의무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지침에 명

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용자를 위해 시설대표자가 단체구매방식을 이용하는데 지역마다 구비서류가 다르고 표준양식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의 부정 사용방지를 위해 시설대표자에게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도록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문화 체험 기회의 폭을 넓혀 통합문화이용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가맹점 등 사업 관계자들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고흥군 포두 원상대 마을 전국 최초 ‘치매안심마을 1호’ 지정

### 외부자원 연계로 치매관리 강화

고흥군은 최근 포두면 원상대 마을에서 치매로부터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한 ‘치매안전, 건강마을’ 농촌 재능나눔 행사를 갖고, 포두면 원상대 마을이 전국 최초로 ‘치매안전, 건강마을 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마을 장수어르신 기념, 마을 현판식 등을 시작으로 치매선별 간이검사, 치매예방 보드게임, 치매예방 목공예 등 치매예방 및 안전관리가 중심이 되어 생활안전과 자가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의료 혜택이 낮은 농촌을 대상으로 인근 의료 관련 대학생과 외부의 우수한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며, (사)생활안전보건연합회와 순천청암대가 시행하고, 고흥종합병원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치매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부담과 고통을 주는



질환으로, 예방과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효율적인 치매관리사업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으며, 치매상담 콜센터 ‘하나로 서비스’(1899-9988)를 운영해 24시간 치매 관련 모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고흥=한윤심 기자

## 전북연구원 “가정위탁보호 제도 정책, 인식 개선 필요”

전북연구원은 1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가정위탁보호에 정책 지원과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정위탁보호란 부모의 질병·이혼·학대·사망 등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복지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반 가정에 맡겨 양육하는 제도다.

연구원은 “가정위탁보호의 핵심이자 주 업무인 일반위탁가정의 지속적인 발굴, 양성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위탁 아동 양육비 지원의 단계적 현실화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위탁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자립 준비 서비스와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체계가 강구돼야 한다”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정위탁보호 제도도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일반인은 물론 공무원, 교사도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무엇보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구원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도내 가정위탁보호 가구는 지난해 6월 기준 575세대로 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은 743명으로 집계됐다.

위탁아동 연령대는 17~19세가 34.2%(2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탁 사유는 부모 이혼이 42.8%를 차지했다.

위탁보호 유형으로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위탁가정이 72.7%, 8촌 이내 혈족이 양육하는 친인척위탁가정 20.9%, 혈연관계자 전혀 없는 일반위탁가정 6.5% 등으로 나타났다.

## 장흥군 안양면, 다시 피는 인생 ‘힐링원예치료’

장흥군 안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까지 (재)정남진 장흥노인복지재단 공모사업을 통해 힐링 원예치료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시작된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의 신체적 노화 및 사회적 역할의 상실로 인한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5개 경로당에 추진됐으며 참여 어르신들의 반응 또한 매우 좋다.

원예치료는 뇌를 자극하여 인지능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문마을의 한 어르신은 “날이 더워 기력이 없었는데, 시원한 곳에서 무더위도 식히고 함께 모여서 꽃도 만들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김한석 안양면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고,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